

보령시(保寧市)

보령시는 충청남도의 서남부 지역, 차령 산맥과 서해 사이에 위치한다. 북부는 홍성군의 서부면·결성면·은하면·광천읍·장곡면과 접하고, 동부는 청양군 화성면·남양면, 부여군의 외산면·내산면·홍산면·옥산면과 접하고, 남부는 서천군의 판교면·비인면·서면과 접하고 남부는 황해에 접하고 있어 많은 유·무인도를 포함한다.

보령시 지역은 1914년 3월 일제의 부군통폐합령(府郡統廢合令)에 의하여 과거의 보령군·남포군·오천군이 통합되어 보령군으로 개편되면서 하나의 지역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과거의 보령군은 주포를 중심으로 한 현 보령시 북부 지역으로, 백제 시대에는 신촌(新村)으로 불렸으며 통일신라 시대에는 신읍(新邑)이라 불리다가 고려 태조 23년에 보령현으로 개정되었으며 1895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보령군으로 개칭되었다.

남포군은 남포를 중심으로 한 보령시의 남부지역으로 백제시대에는 사포(寺浦)로 불리다가 통일신라 시대에 남포현으로 개칭되고 1895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남포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천군은 오천을 중심으로 한 보령시의 서북부와 도서 지역으로, 옛 충청수영을 중심으로 생긴 군이다. 충청수영은 조선 태조 5년(1397)에 수군첨절사(水軍僉節使)를 두기 시작하여 세종 3년(1421)에 도안무처치사(都安撫處置使)를 두고, 세종 12년(1466)에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두었으며 1896년 지방 관제 개편에 따라 수영(水營)이 폐지되고, 고종 광무 5년(1901) 4월 18일 오천군을 신설하였다. 오천군청은 구 장교청에 두었으며 보령군의 김신면, 홍성군의 용천면·안면도·가의도, 비인면의 연도, 서천군의 개야도, 죽도 등을 오천군에 소속시켜 천동면(川東面), 천북면(川北面), 하남면(河南面), 하서면(河西面), 면상면(眠上面), 면하면(眠下面) 등 6개 면을 두었다. 그러다가 1906년 10월 면상면과 면하면은 태안군으로 이속하였고 1914년 부군폐합령(府郡廢合令)에 의하여 하남면의 연도, 개야도와 하서면의 어청도가 전라북도 옥구군으로 이속되고 나머지는 보령군에 편입되었다.

4 • 보령시

1914년 이후의 보령군은 주포면, 청소면, 대천면, 청라면, 남포면, 웅천면, 주산면, 미산면, 오천면, 천북면의 10개 면, 110개 리를 관할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 11월 21일 대천면이 대천읍으로 승격되고, 1986년 1월 1일 대천읍이 대천시로 승격되면서 보령군과 분리되어 원동, 대천동, 대신동, 흥덕동, 왕대동, 현포동의 6개 동을 두었다가 1995년 1월 1일자로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되어 보령시로 부르게 되었다. 또한 1986년 4월 1일자로 미산면 성주출장소가 성주면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4월 1일 주포면 주교출장소가 주교면으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3월 2일자로 웅천면이 웅천읍으로 승격되었다.

1998년 10월 28일 왕대동이 현포동으로 통합되었고, 1999년 7월 20일 원동이 대천1동으로, 대관동이 대천2동으로, 대신동이 대천3동으로, 흥덕동이 대천4동으로, 현포동이 대천5동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8년 현재 보령시는 대천1동, 대천2동,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웅천읍, 천북면, 청소면, 오천면, 청라면, 주포면, 주교면, 남포면, 성주면, 미산면, 주산면의 16개 읍면동을 관할한다.